

‘우승상금 72억원’ 브리더스컵 클래식 도전

휘트니 스테이크스 우승...출전권 획득 최고 권위 경마대회 11월 미서 열려 대회 우승 땀 연도대표마 후보 영예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8일 뉴욕 사라토가 경마장에서 열린 휘트니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우승해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 출전권을 따냈다. 사진은 2018년 브리더스컵에서 질주하는 닉스고(오른쪽).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뉴욕 휘트니 스테이크스 경주 우승

닉스고는 지난해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GI)에서 우승한데 이어 올해는 페가수스 월드컵(GI)에서 우승했다. 2년 연속 해외경주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닉스고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또 한번 승전보를 전해왔다.

8일 뉴욕 사라토가 경마장에서 열린 휘트니 스테이크스(GI, 1800m, 더트, 4세 이상) 경주에서 우승을 거뒀다. 휘트니 스테이크스는 브리더스컵 첼린지 시리즈 경주로 우승마는 53만5000달러(6억4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브리더스컵 클래식(GI)의 출전 자격을 받는다.

이날 닉스고는 4번 게이트를 배정받아 다섯 두의 경주마와 함께 레이스를 시작했다. 출발 직후 경쟁마 스위스스카이다이버의 안쪽 추격을 제치며 선두에 나섰고, 이후 단독 질주를 계속한 끝에 4.5마

리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닉스고는 11월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나설 예정이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경마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미국 브리더스컵 월드 클래식스의 메인 경주다. 우승 시상금 600만 달러(72억 원)를 수여하며, 그해 연도대표마 후보에 오른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미국에서 삼관경주(트리플 크라운)에 이어 ‘네 번째 그랜드 슬램’으로 인식되며 미국은 물론 세계로 중계된다.

지난해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마인 어센틱은 2020년 연도대표마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승 직후 어센틱은 은퇴와 함께 켄터키 소재 종마목장에서 씨수말로 활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센틱의 첫 교배료는 1회 당 7만5000달러(8400만 원)로 웬만한 경주마 한 마

리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100회 이상의 교배 횟수를 고려해보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지만 향후 자마들의 능력이 검증된다면 이보다 200~30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마사회 케이닉스 사업의 성과

닉스고의 미국 무대 활약 역시 이러한 종마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마사회는 우수한 능력의 씨수말을 수입해 생산농가에 교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산 경주마의 수준과 혈통을 개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등급 씨수말은 가격이 한 마리에 수백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사회는 유전체기반 경주마선발기술인 케이닉스(K-Nicks)를 도입했다.

유전자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케이닉스는 씨암말에 적합한 씨수말을 매칭시키는 것은 물론, 태어날 자마의 적성과 경주능력까지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마사회는 케이닉스 기술을 활용해 미국에서 닉스고를 포함해 앞으로 기량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구매했다.

한국마사회는 이 경주마들을 미국무대에 데뷔시키고 경주능력과 후대검증을 거친 후 국내로 불러들여 씨수말로 교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케이닉스 담당자는 “닉스고가 향후 경주에서의 좋은 성적은 물론 성공적인 후대검증을 거쳐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재일교포로 태어나 ‘태극마크’ 마사회유도단 김임환·조목희



김임환

조목희

일본의 귀화 유혹을 뿌리치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던 추성훈, 안창림처럼 한국마사회 유도단에도 태극마크를 단 재일교포 선수들이 있다.

남자 -66kg급 김임환(세계랭킹 12위)과 여자 -63kg급 조목희(세계랭킹 30위)다. 재일교포 3세인 이들은 각각 2016년, 2019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했다.

두 선수는 모두 전국체전을 통해 ‘재일동포 선수단’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다. 김임환은 “경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재일교포는 일본에서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인으로 인식되어 힘들다”며 “그렇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조금 당연하게 생각해왔다”고 했다. 조목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태극마크를 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설 때, 그리고 수상자로 포디움에 올라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장 짜릿하고 영광스러웠다고 한다.

2019년 도쿄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딴 김임환은 “일본에서 열린 만큼 가족과 친척, 선생님 등이 와서 응원해 주었는데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대한민국 유도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2020도쿄올림픽에는 아쉽게도 두 선수 모두 대표로 참가하지 못했다. 김임환은 다가올 세계대회를 목표로 맘을 홀리고 있다. 조목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무리한다. 꿈으로 건너가 유도클럽 코치를 하면서 대학에서 영어 공부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장서 취업상담 부스 운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취업지원센터는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열리는 제주 한라대학교와 서울경마공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응시자를 포함해 말산업분야 구인구직에 관심 있는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응시생 취득 자격과 연계한 취업상담,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안내한다. 홍보부스 이용 및 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한반도 첫 공인 경마장은? ‘군산경마장’ 1927년 10월 첫 대회

서울 신설동경마장보다 약 1년 빨라 1930년 하루 평균 마권 5000장 판매

2022년은 한국경마가 시행된 지 100주년 이 되는 해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100주년을 앞두고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한국 경마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군산 경마장의 발자취를 돌이켜 봤다.

●군대경마, 1922년 경마구락부에서 태동

한국경마는 학생 체육대회 수준의 나귀 경주, 기병경주에서 시작했다. 본격적인 군

대 경마는 1922년 서울에 사단법인 경마구락부(클럽)가 발족하면서부터다. 이어 평양, 대구, 신의주, 부산, 군산 등에 차례로 법인이 인가됐다.

합흥, 청진, 웅기 세 곳에 경마장이 추가로 증설되며 전국 9개 경마장에서 순회경마의 시대가 1941년까지 지속됐다. 당시 기술들과 참가 말들은 봄과 가을 시즌에 맞춰 전국을 순회하며 경기에 참여했다.

한반도 최초의 공인 경마 경주로는 전북 군산경마장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옛 군산경마장은 지금의 군산동부시장 중심이었던 경안동 지역에 위치했다. 군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국내에서 수확한 쌀의 수출항 구였기에 일본인 거주자들이 많았다. 일본인 상주인구가 많다 보니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등장하면서 경마도 실시했다.

1923년까지는 해안매립지에서 경마를 시행하다 당시 경장리(경안동)에 7만m² 규모로 경마장을 만들었다. 공인 규격의 고정경마장도 군산과 서울이 다른 곳보다 빨랐다. 경주 시행 날짜로 보면 군산이 1927년 10월 준공기념 대회를 5일 동안 열었고, 서울 신설동경마장은 이듬해인 1928년 9월에 첫 대회를 열어 군산이 1년 앞섰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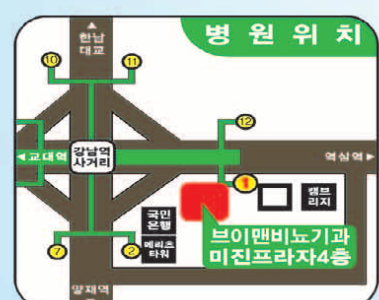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중근 원장



브이맨비뇨기과 최중근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



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 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www.vmanclinic.com
02)3469-1900 강남역1번출구 바로옆

건강 100세 파워!

최신! 전립선 운동기!



1. 하루밤에 화장실을 5~6번씩 가십니까?
2. 소변발이 가늘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3. 유지시간이 짧으십니까?

※ 이럴 땐 하루 10분 전립선 운동기로 운동시켜주세요.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인체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전립선을 정확하게 자극하여 10가지의 진동으로 강한 쾌감을 줌!

★최신 제품 : 빅사이즈 스프레이!

①이제는 먹지 않고 뿌린다!

②뿌린 후 5~10분 후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음)

상담 문의 02-470-2093